

The Context for Conflict and Reconciliation: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Ireland and the United Kingdom

Jin Kyung Jang (University of Cambridge)

ABSTRACT

Since the landing of Anglo-Normans on the island of Ireland in 1169, Ireland's position within the British Empire has been marked by ambiguity and complexity.* Officially part of the Kingdom from 1801, many Irish hoped for equitable treatment; however, the prevailing English attitude often reflected contempt, viewing the Irish as insufficiently "civilised". This bias was largely rooted in religious differences, as the majority of Irish were Roman Catholic, contrasting with England's Protestant majority. The English perceived the Irish as ignorant, outdated in their beliefs, and potentially sympathetic to Catholic powers on the Continent. Strategically, Ireland's proximity to Britain heightened fears that countries like France might use it as a launch point for attacks.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1798 Rebellion and the Easter Rising, exemplified these anxieties, as both uprisings sought assistance from France and Germany during conflicts with Britain. Consequently, British governance of Ireland fluctuated between coercion and appeasement, while Irish aspirations ranged from seeking assimilation within the Empire to pursuing full independence. This paper will explore the intricat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England and Ireland, analysing their mutual perceptions and reactions throughout this period. By doing so, it aims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relations between Great Britain, Northern Ireland, and the Republic of Ireland,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recent developments stemming from Brexit.

*The island of Ireland currently comprises the Republic of Ireland, a sovereign country, and Northern Ireland, which is part of the United Kingdom. Great Britain consists of England, Scotland, and Wales, while the United Kingdom includes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In this paper, "Ireland" will refer to the island of Ireland before 1921, while it will denote the Republic of Ireland for the period after 1948."

갈등과 화해의 배경: 아일랜드와 영국의 역사적 관계

1169년에 앵글로 노르만인들이 아일랜드 섬에 상륙한 이래 대영제국 내에서 아일랜드의 위치는 모호함과 복잡성으로 점철되어 왔다.* 1801년부터 공식적으로 대영제국의 일원이 된 많은 아일랜드인들은 공평한 대우를 희망했지만, 영국인들은 지배적인 태도를 취하며 아일랜드인을 충분히 '문명화되지 않은' 존재로 간주하고 경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편견은 주로 종교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었다. 아일랜드인의 대다수가 로마 가톨릭 신자였던 반면 영국인은 개신교 신자가 대다수였다. 영국인들은 아일랜드인을 무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 대륙의 가톨릭 세력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인식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와 같은 국가가 공격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아일랜드가 가까워, 영국의 두려움을 키웠다. 1798년 반란과 부활절 봉기 같은 역사적 사건은 이러한 불안감을 잘 보여주었는데, 이 두 봉기를 일으킨 아일랜드인은 영국과의 분쟁 중에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의 지원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아일랜드를 통치하면서 강압책과

회유책을 번갈아 가며 취했고, 아일랜드인은 대영제국과 동화됨을 추구하기도 하고 완전한 독립을 열망하기도 했다. 이 글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이러한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 기간 동안 양국의 상호 인식과 반응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대 영국과 북아일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공화국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히 최근 브렉시트로 인해 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일랜드는 현재 주권 국가인 아일랜드 공화국과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국은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이 글에서 '아일랜드'는 1921년 이전에는 아일랜드 섬을 가리키며, 1948년 이후에는 아일랜드 공화국을 가리킨다."

.....